

권문權門과 조선시대 가문별 성씨별 과거 합격자와 정승등 대제학의 비율에 대한 소고小考

과거제도는 고려시대 중기부터 활성화되는데 과거시험 전에 '가계도(家系圖)'를 제출하게 되면서부터 과거시험 합격자들은 왕권을 위한 세력으로 등장한다. 이들의 신분은 고려에 그치지 않고 조선으로 이어져 사실상 조선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고 이 과거제도로 인해 성씨가 활성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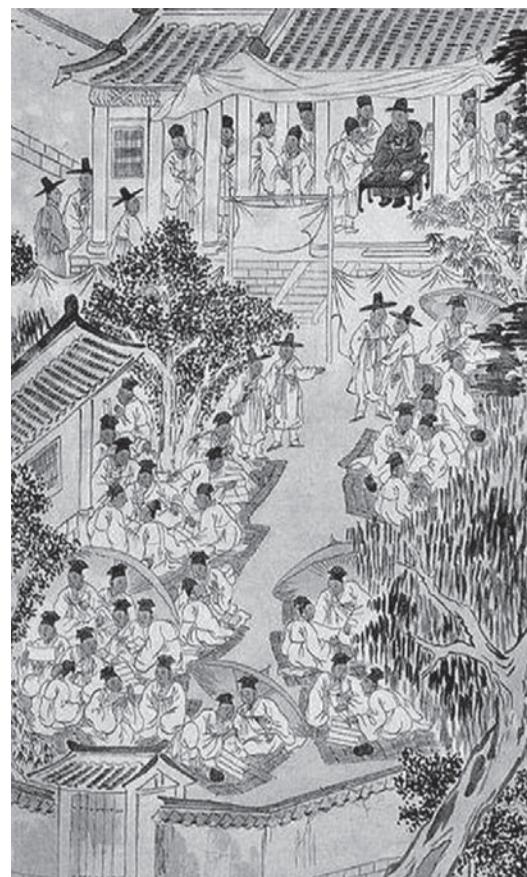
이후 조선에 와서는 양반은 군여, 세금 등이 면제되니 더욱더 성씨 및 관직 획득에 혈안이 된다. 이 과거제도도 알고 보면 후에 타락하고 변질되니 특히 노론이나 안동 김가 세도가들, 왕족인 이씨들이 설치는 조선 말기에는 하나마나한 제도가 되다시피 된다. 어차피 양반의 90%가 조작으로 만들어진 것인 데다가 당시에는 모든 게 과거합격 즉 관직 획득에 개인의 운명이 달려있어서 더욱 그런 것이다. 그래도 이 과거제도는 태생적 귀족사회에서 그나마 신분과 권력의 이동에 숨통이 되어 주고 중앙 집권적 왕권의 강화에 도움을 준 측면이 있다.

해방 후 공부만 잘해서 학력이 높으면 신분변동이 되니 죽자사자 공부시키는 거와 같은 맥락이다. 그것이 이제 또 특권화하여 '검찰 적폐'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제도는 조선말기에는 평북 쪽 안주지방이 많이 되어 단일 지역으로는 급제자가 평북 안주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안동인데, 안주 출신 중에 고위직인 상신(相臣)이 있는가 보면 거의 없다. 즉 명목만 그렇지 진급 등은 왕족 친위 외척세력이나 당파와 지역 세력들이 다독침해 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우선 조선 500년에 문과 급제자 수가 3,329명으로 겨우 연평균 6명 정도이다. 거의 1960년대 사법 고시 채용인원이 연간 10명 내외에서 5.16쿠데타 이후 6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본다면 인구비례로 봐도 그 정도 수준이다. 과거(科擧) 합격한다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조선의 과거는 바늘구멍만한 로또(Lotto) 같은 것이다. 그런데 3년에 한 번 치르는 과거에 장원을 2번 한 사람도 있으니 가히 천재다. 장원급제자는 전주이씨 66명으로 1위이고 안동권씨는 28명으로 3위이고 여흥민씨가 20명이다.

이런 천재들이 국리민복의 실사구시(實事求是)와는 거리가 먼 성리학의 공리공론이나 공부하였고 과학은 잡과(雜科)로 도와시하니 나라가 잘 될 터이 있었겠는가? 사실 요즘 고시는 잡과에 해당한다. 요즘도 이런 잡과에 매달리고 이런 것들이 철학 없이 법률 기능인이 되어 보니 공의보다는 사리사욕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각설하고 우선 절대 솟자는 역시 왕족 성씨인 전주이씨들이 다수이다. 틀림없이 집권 성씨 프리미엄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인구도 330만명이나 되니 인구비례로 봐도 1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 2위는 우리 안동권문이다. 그러나 이 순서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고, 인구수 대비 합격률 순위를 따져보는데 성씨별 인구가 현재 기준이니 이 또한 의미 부여가 힘들다. 어제 그런가 하면 조선 중후반기에 대부분 족보가 만들어지고 일제 초기 호적등록 시 영터리로 만든 게 30%가 넘고, 이후 1930년대 족보 세탁 및 위조 시에 늘어난 걸 따지면 그렇다는 것이



김홍도의 공원춘호도(貢院春曉圖: 봄날 새벽의 과거시험장)

지만 그래도 이것은 중요하다.

그 비율로 따지면 연안 이씨가 9위에서 1위로, 남양 흥씨는 4위에서 2위로, 안동 김씨는 5위에서 3위로, 안동권씨는 2위에서 4위로, 괴평 윤씨는 3위에서 5위로, 청주 한씨는 6위에서 같은 6위, 광산 김씨는 8위에서 7위, 전주이씨는 1위에서 8위, 진주 강씨는 10위에서 9위 밀양 박씨는 7위에서 10위이다. 전주이씨는 집권 프리미엄이 있는 데 어찌 적은가? 그 것은 왕족으로 명목상 작위도 많고 원칙적으로 왕족 성씨가 실제적 권한을 가진 관료가 되는 것은 매우 '정권 안보'에 위험하니 자제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승(부총리 이상)인 상신(相臣)의 수자로 따져 보면 합격보다 배경이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람 수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직 기간이 중요한데 그 데이터는 정밀히 따져봐야 한다. 황희 정승은 혼자서 영의정 18년을 포함하여 24년간 정승을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이 영의정을 여러 번 한 경우도 있고 아주 단기간 한 사람은 매우 많다. 특히 서울 시장인 한성판윤은 거의 평균 재임 기간이 1년이 안되는 실정이다. 그만큼 매관매직이 심했다는 것이다. 합격자 대비 상신(相臣) 수를 따지면 그 권력의 집적도나 개인의 능력 정도를 알 수 있다. 즉 급제자 본인이 잘해서 관직이 높아졌는지 성씨나 당파 프리미엄이 있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중간 생략하고 대충 합격자나 상신 순위가 비슷하여 유의미한 것이 없으니 넘어가자. 그런데 합격자 수가 2위인 안동권씨는 7위이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조선 초기 권근과 조선 중기 권철은 당파도 없었고 능력 대로 된 것이다. 거기서 권력이 반란 세력의 프리미엄을 누렸지만 그래도 그 정도 능력은 되었다. 조부 석학 권근의 '응제시'는 명나라 초대황제와 당당히 겨루어 '단군'을 언급하게 했고 이후 그것에 주(注)를 단 것이 권람이니 그 공로는 매우 크다. 그러나 나중에 권대운(權大運)이 영의정 한 번 한 거 빼고는 거의 400년간 남인 계열로 권력과는 멀어졌다. 해방 후 남한에서 겨우 뭐 권모 범무장관이나 권모 의원 정도가 권력의 언저리라고나 할까? 그런데 무슨 권씨가 권력을 잡았다는 것인가?

앞으로 조선시대를 따질 때도 과거시험이나 관직

보다 그 인품과 사회적 활동을 위주로 한 내용을 강조해야 한다고 본다.

계파	15세기말까지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개
주밀공파(周密公派)	27	33	55	54	30	199
서이공파(徐怡公派)	18	7	15	11	22	73
동성공파(同正公派)	0	0	0	0	1	1
처운공파(仇允公派)	1	1	3	1	1	7
별장공파(別藏公派)	1	2	0	0	0	3
부정공파(副正公派)	2	2	4	5	2	15
시종공파(始忠公派)	4	2	3	7	11	27
호전승운공파(虎珍承允公派)	1	2	0	0	0	3
김교공파(金校公派)	5	3	3	1	2	14
금사공파(金思公派)	1	5	0	1	2	9
미상	0	1	0	2	4	7
개	60	58	83	82	75	358

'소과응시' 권문의 문과 파별 급제자 수

살펴보면, 합격자수 5위인 안동 김씨가 1위이다. 이것은 조선말기에 세도정치 하면서 자기 파당끼리다 해서 그리된 것으로 김씨들이 너도나도 한 번씩 정승이 된 거고 이때 왕비도 연속 안동 김씨에서 나오고 게다가 왕들은 이상하게 자손이 적고 왕대비라는 것이 기승을 부리고 마지막엔 기상천외하게 살아있는 대원군(李顯應)이 나오지를 않나 하여간 망조의 연속인데 이때 일본제국주의의 발흥은 결정타를 먹인다. 중국의 몰락은 새로운 기회를 주었음에도 혼편없는 이기주의에 빠진 양반 족족들은 동학혁명의 갑오년 희생을 이세를 이용해서 분탕질을 치는 죄악을 저지르고 결국 나라를 왜에게 헌납하는 죄과를 남기고 만다. 나라나 개인이나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면 그런 것이다. 19세기 말 2차 산업혁명의 격변기에 기회를 탄 일본은 세계적 국가가 된다. 이제 그 기회가 또 오고 있으니 이번에는 절대로 실기해서는 안된다. '못난 조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청주한(韓)씨도 합격자 수자로는 6위이나 상신은 2위이다. 한명희 등이 설치면서 독점하고 이 당시 한씨 왕후가 많이 나온다. 연안 이(李)씨는 9위인데 견조하게 3위를 하고 있다. 왜나? 바로 나라 말아먹는다. 고지식하게 특권을 누린 노론 세력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제대로 분석하여 그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아직도 일제를 거쳐서 나라 말아먹은 외세의 존족들 중에 노론이 대세이니 말이다.

중간 생략하고 대충 합격자나 상신 순위가 비슷하여 유의미한 것이 없으니 넘어가자.

그런데 합격자 수가 2위인 안동권씨는 7위이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조선 초기 권근과 조선 중기 권철은 당파도 없었고 능력 대로 된 것이다. 거기서 권력이 반란 세력의 프리미엄을 누렸지만 그래도 그 정도 능력은 되었다. 조부 석학 권근의 '응제시'는 명나라 초대황제와 당당히 겨루어 '단군'을 언급하게 했고 이후 그것에 주(注)를 단 것이 권람이니 그 공로는 매우 크다. 그러나 나중에 권대운(權大運)이 영의정 한 번 한 거 빼고는 거의 400년간 남인 계열로 권력과는 멀어졌다. 해방 후 남한에서 겨우 뭐 권모 범무장관이나 권모 의원 정도가 권력의 언저리라고나 할까? 그런데 무슨 권씨가 권력을 잡았다는 것인가?

앞으로 조선시대를 따질 때도 과거시험이나 관직보다 그 인품과 사회적 활동을 위주로 한 내용을 강조해야 한다고 본다.

글 권오철 기자

충숙공 권절묘 남양주시 향토유적 지정

경기도 남양주시는 2019년 12월 19일자로 별내동 산 121-1번지에 소재한 충숙공 권절묘 2기를 남양주시 향토유적 제14호로 지정하였다. 따라서 충숙공 종중(회장 권혁래)에서는 지난 2월 고유제를 봉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봉행을 미루다가 문화재 안내판이 설치된 연후인 지난 6월 23일 고유제를 봉행하였다. 이로써 충숙공 권절 경례(2017년 9월



권절묘 안내판

28일자로 남양주 향토유적 제13호로 지정됨)

에 이어 묘지도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어 충숙공

권절의 위상을 드높게 하는 광영을 가졌다.

충숙공 권절(추밀공파 18세, 1422~1494)의 자는 단조이고 호는 율정 또는 취옹정인데 정현공 왕후(본 휘는 권재)에 혼손이며 밀직공 왕중의 증손, 집(公)의 손자, 정랑공 심의 아들이다. 세종 29년(1447년)에 친시 문과에 급제하고 집현전 교리를 역임하였다.

공은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기 전 수차례 찾아와서 계유정란에 동참해 줄 것을 권유했으나 거짓 귀여거리 행세를 하면서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세조가 왕위에 오른 후에도 34세의 젊은 나이로 벼슬을 내려놓고 양주 향리에 은거하면서 일생을 마쳤다.

공의 이러한 행적은 세조의 왕위 찬탈과 노산군(후에 단종으로 복위)의 사사를 불의로 여기고 선왕에 대한 불사이군의 충절을 지킨 것이며 또한 성삼문 등 사육신이 절사할 때 집현전 교리로 있으면서 이들과 맷은 충절의 결의를 지켜온 것이다.

공의 단종에 대한 충절은 세인의 입을 통해 생육신의 한 분으로 후세에 알려졌고 마침내 숙

남양주시 향토유적 제14호

指 定 書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산121-1
명칭 : 충숙공 권절 묘
수량 : 묘 2

*남양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 제5조에 따라
위 문화재를 남양주시 향토유적으로 지정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남양주시장 조 광

충숙공 권절 묘 향토유적지정서

2020年 7月 종보대금 납부자 명단

안동권씨 종보대금을 납부해주신 족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더욱 알찬 종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름순)(단위: 원)

권기순(대구 수성구) 30,000	권영대(익산) 30,000	권오주(서울 강남) 30,000	권중욱(서울) 30,000
권기현(전주) 30,000	권영돌(서울 화곡동)* 30,000	권오창(영주) 30,000	권태문(진천) 30,000
권동옥(부천) 30,000	권영환(음성) 30,000	권정집(세종) 30,000	권혁래(성남) 30,000
권부종(고흥) 30,000	권오수(안동 신안동) 30,000	권정태(합천) 50,000	권혁열(경기 구리 인창동)* 30,000
권영균(정읍) 30,000	권오순(영양) 30,000	권중봉(거제) 30,000	

● 납부기간 : 6. 30. ~ 7. 29. ● 총 납부자 19명

※ 납부자 본인 확인이 필요하오니 대종회로 꼭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권씨 종보 대금 납부 안내

3만원
납부는
100만 족친의 번영과 화합의 상징입니다.

♣ 동명이인 등으로 납부자 명단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오니 통장 입금 시 입금자란에 입금자명과 거주지역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금계좌 : 농협 317-0009-7471-41(안동권씨 대종회)
국민 033237-04-006941(안동권씨 대종회)

♣ 문의전화 : 02-2695-2483~4

안동권씨 대종회